

## 영어 시제와 상

김정오<sup>○</sup>

<sup>○</sup>광주여자대학교 어린이영어교육학과

e-mail: {meridian}@kwu.ac.kr<sup>○</sup>

## Tense and Aspects in English

Jeong-o Kim<sup>○</sup>

<sup>○</sup>Dept. of Childhood English Education, Kwangju Women's University

### ● 요약 ●

본고에서는 시제의 일반적 정의와 상에관한 개념들을 정리 하였다.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는 동사의 굴절형'이고 따라서 시제는 문법범주의 하나로서 영어의 경우 현재시제와 과거시제를 인정하고 있다. 시제처럼 상을 문법범주로 인정한다면 그 기술 대상은 당연히 문법적 표현에 국한될 것이고 반대로 문법범주가 아닌 의미범주로 간주하면 문법적 표현은 물론이고 어휘적 표현까지 기술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상은 문법범주로서 명시되어 있고 특히 영어의 상은 진행형과 완료형의 두 형태로 국한하고 있다. 이 경우에 진행상(the progressive aspect)은 진행형, 완료상(the perfect aspect)은 완료형을 가리킨다. 이렇듯 시제와 상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겠다. 더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상에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고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키워드: 시제(Tense), 상(Aspect)

### 1. 서론

한 문장에서 동사가 표출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외면적인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시제이고 다른 하나는 동작 양태의 내면적인 시간을 반영하는 것이다. 시제와 시간의 차이와 더불어 시제와 상(sspects)은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제는 장면 의존적인 특징이 있고 후자는 비 장면 의존적이라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우리들은 여러 가지 문법적 도구를 사용하며, 같은 문법적 도구라도 사용되는 여건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는 단어의 형태나 문장 구조의 정확성 또는 규칙의 올바른 적용을 다루는 문법을 중시하는 반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native speakers)은 상황과 내용에 따른 적절한(felicitous) 언어 사용을 중시한다. 문법능력(grammatical competence)을 중시하는 학습자들의 화용 능력(pragmatic competence)은 한계가 있으므로, 원어민들과의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분야중의 하나가 시제와 상(aspects)의 사용이다. 2절에서는 상황<sup>1)</sup>의 시간적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제의 정의를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통해 알아보고, 제 3절에서는 상과 관련된 여러 정의들과 상을 어떻게 정의 하고 기술할 것인지를 논의 하고자 한다. 제 4절에서 결론과 함께 시제와 상의 상관관계를 이야기 하겠다.

이렇듯 본고 에서는 일상적인 담화에서 영어 화자들이 시제를

어떻게 선택하여 사용하는가를 살펴보고, 또한 영어에서 상이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 지는지 몇몇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시제와 상의 관계를 정의 하겠다.

### 2. 시제의 정의

현실 세계의 시간을 언어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해당하는 적절한 범주표현이 필요하다. 예컨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색깔은 256가지가 존재하지만 자연언어에는 이에 해당하는 명시적 명칭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듯 시간도 무수히 많은 시점들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이들 점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언어 표현이 필요할 것이다.

Benard Comrie (1976)에 의하면 시제는 시간속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재의 순간을 지시하고 다른 상황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이다.<sup>2)</sup> 이와는 달리 Comrie는 시제를 deictic category로 보았다 영어에서 finite verbs는 언급된 시간이 그 문자의 다른 사왕에 언급된 시간과의 상대적인 관계를 갖는 상대적 시제를 갖는다. 그러나 색깔에 대한 명칭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시간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다. Lyone(1972)에 의하면 tense를 기본적으로 하나의 지시적 범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시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문장에서 언급된 행동, 사건, 상태의 시간을 발화의 시간에 연결시키는 범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Leech(1971)도 시제를 deictic category로 보았는데

1) 상황이란 사건 행동 상태 과정 활동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tense... locates situations in time, usually with reference to the present moment, though also with reference to other situations

발화하는 순간 이외의 다른 때의 상황의 실재와 발화하는 순간에 존재하는 상황의 심리적 존재사이의 연관성을 시제라 했다. 이렇듯 tense는 말에 언급된 상황의 시간과 발화하는 시간사이의 위치를 지시해주는 범주라는 것이 공통된 사실이며, 그 기본적인 의미를 상황의 실재 존재와 발화하는 순간에 화자가 갖는 심리적인 존재 사이의 시간사이의 위치를 지시해주는 관계라고 규정한다. 시제는 situation external time를 나타낸다 할 수 있다.

### 3. 상의 정의

동사는 문장의 표정을 나타내는 문장의 얼굴이나 마찬가지로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회로에 의한 표정들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눈썹, 눈, 코, 귀, 입이다. 이 5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화가는 사람의 표정을 그린다. 우리는 이 5가지를 따로따로 말하지 않고 종합하여 '웃는 상' 혹은 '우는 상' 등의 표현을 쓴다. 마찬가지로 영어의 문장도 동사의 Mood, Tense, Aspect, Voice로 문장의 표정을 나타낸다. 때문에 하나하나 따로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를 종합하여 하나로 어떤 표정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간단하다. 예를 들어 The report may have been being read.은 5개의 작은 상들이 모여 하나의 큰 상을 이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얼굴의 뜻을 가진 상으로 통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는 '형(Form)'자를 대표로 과거형, 미래형, 완료형, 진행형, 능동형, 수동형 등으로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상(Aspect)'자를 대표로 부른다고 크게 잘못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상이란 동사에 관한 문법범주의 하나로써 시간 영역내의 동작 과정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른 동작의 양태나 성격 등의 차이를 파악해 나타내는 문법 형식이다. 구체적인 '상'의 의미로는 지소(duration), 반복(iteration), 순간(momentariness), 동(inception) 완료(completion) 결과(result) 등이 있다. 시제가 직시적(deictic)인데 반해, 상(Aspect)은 비직시적이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에 대해 Comrie(1976:4)는 그의 Aspect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완료상과 미완료상을 구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완료상은 어떤 내적 구조의 상황의 필수적인 구별 없이 외부로부터 상황을 보는 것이고 반면에 미완료상은 내부로부터의 상황을 보는 것이다. 즉 상황의 내적인 구조에 깊이 관여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황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그 상황이 어떤 끝이 없이 혹은 어떤 시작 없이 전체 시간을 통해 마지막이 있다면 정말로 그것은 똑같다고 한다.

즉 Perfective는 시간 변화에 따라 변화가 있는 것으로 마치 건물을 볼 때 멀리 떨어져서 건물 전체를 보는 것과 같다고 보 수 있고, Imperfective는 건물 안의 어느 일부분만을 보기 때문에 전체의 모습을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러시아어와 슬라브어에서는 perfectivity와 imperfectivity의 의미가 다시 세분화하여 momentariness, inception, completion, result, duration, iteration등 개념의 대립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된다.

조성식(1990:94-95)은 상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다소 의구심을 일으키지만 의미가 중요하게 변화는 두 단계의 차용과정(two step loan process)을 가진다고 말하였다. 러시아어 vid는 대개 종류, 유형(kind, type)을 뜻한다. 문법적 측면에서 vid가 이용될 때 그리스어 eidos로 번역된다. 이는 원래 단순과 파생어휘항목 사이의 구별을 가리킬 때 사용 되곤 한다.

영어에서 문법적 범주로서의 상의 존재를 인정하느냐에 관하여는 논의가 많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영어의 완료형과 진행형을 러시아어의 완료상/미완료상의 대립에 해당한다고 보는 막연한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상을 현대영어 입장에서 생각할 때 생성의미론자의 주장대로 상에는 두가지 뚜렷한 형태, 즉 완료상과 진행상이 존재하고 있어 자유롭게 서로 결합되어 사용된다. 이렇듯 상이란 동사에 관한 문법 범주의 하나로써 시간 영역내의 동작 과정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른 동작의 양태, 성격 등의 차이를 파악해 나타내는 문법양식이라 할 수 있다.

### 4. 시제와 상

시제와 상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문법범주라고 볼 수도 있고 시각을 조금 달리하면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범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문법에서는 이들이 보통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현대 언어학에 와서야 비로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언어를 분석하기 위해서 언어의 정의가 출발점이 되듯이 시제와 상의 정의에서 문법을 기술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영어의 시제와 상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간의 흐름에 상응하지 않는 시제 혹은 상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예외 적인 문장, 혹은 설명하기 곤란한 문장들이 있다. 어떤 언어이든지 그 언어의 핵심 부분에는 동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동사의 핵심은 시제와 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 영어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하겠다. 시간은 시제의 출발점이고 동사 원형에 굴절을 가하여 과거의 사건, 내용을 언급하고 현재 형태소를 붙여 현재를 나타낸다. 따라서 영어 학습자들이 시제와 상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립한다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빠르게 얻을 것이다.

앞 장에서 다루어 보았지만 상과 관련하여 직시해야 할 내용이 어휘적 상과 문법적 상이 있고 그것의 차이나 특징들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면 문장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좀 더 정확히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의 시제와 상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시간과 관련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의미 이론 또한 존재 한다고 할 수 있다. 더하여 영어의 시제와 상에 관계되는 또 다른 이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간주된다.

3) 상(Aspect)은 원래 슬라브어 vid의 역으로써 슬라브어 동사의완료형식(perfective)과 미완료형(imperfective)으로 된 이항대립을 가리킨다. vid는 that which is visible을 의미하고, 이것은 화자가 동작을 기술하는 관점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1] Carden, G. (1976). English Quantifiers, New York, Academic Press.
- [2] Cooper, R. (1983) Quantification and Syntactic Theory, Reidel, Dordrecht.
- [3] Comrie, B. 197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4] Curme, G. O. 1931. Syntax: A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Boston: Heath and Company.
- [5] Ki-young Lee (1976), Syntax and Semantics of Prenominal Negation in the Framework of Montague Grammar, Language, 1-2
- [6] Montague, R. (1973), PTQ, in Approaches to Natural Language, Reidel, Dordrecht.
- [7] Seong-sik Jo (1990) Introduction Linguistic.